

외국인 번역가의 한국문학번역장 진입과 위치 취하기(position-taking): 부르디외의 장(field)과 독사(doxa) 개념을 중심으로*

최은경(한국의국어대학교)

1.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문학 번역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한 외국인 번역가가 번역장에 진입하여 자신의 위치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번역사회학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최근 한국문학은 세계 문학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그 위상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번역 주체와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구조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한국문학의 해외 진출이 주로 국가 주도의 기획이나 소수의 번역가들에 의해 견인되었다면, 최근의 흐름은 목표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외국인 번역가들의 참여가 가시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며,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영어로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외국인 번역가들은 한국어, 한국문화, 나아가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과 목표 언어의 유창성, 문학적 감각, 해외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이끄는 핵심적 매개자로 자리 잡고 있

* 본 논문은 저자의 석사 학위 논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되, 이를 새로운 분석 관점과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재구성하고 발전시킨 연구임

다. 이에 한국문학번역원을 비롯한 기관들은 “외국어 원어민의 타고난 표현력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주로 원어민 번역가들을 위한 7개 언어권의 프로그램을 운영”(전수용, 2025)하는 등 외국인 번역가 발굴을 위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처럼 한국문학의 세계적 위상이 제고되고 외국인 번역가의 가시성이 확대되는 등 현장의 변화는 뚜렷하지만, 정작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한국문학번역장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2000년대 들어 ‘번역사회학(Sociology of Translation)’의 부상과 함께 텍스트를 넘어 번역 주체와 사회문화적 상황 맥락에서의 번역 과정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이영훈, 2021; Wolf & Fukari, 2007), 국내 학계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번역가 연구 및 번역가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을 탐구하려는 번역사회학적 연구를 확장해 왔다. 그러나 부르디외(Bourdieu)의 장 이론을 적용한 기존의 논의들은 비문학 번역장에 집중되어 있고(임진, 2023), 임진(2020, 2021), 이화연(2025)의 연구 사례처럼 개별 번역가의 아비투스 중심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번역의 방향성 역시 외국어 텍스트를 한국어로 옮기는 작업에 편중되어 있다(이영훈, 2021; 이화연, 2025; 임진, 2020, 2021). 즉, 한국문학번역장이라는 고유한 장의 특수성과 그 안에서 전개되는 외국인 번역가의 실천을 구조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 번역가가 한국문학번역장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어떠한 경로로 진입하며, 그 과정에서 장의 규칙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규명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에 부르디외의 장 이론을 분석의 틀로 삼아, 외국인 번역가가 한국문학번역장에 진입하는 제도적 경로와 장 내부에서의 전략적 위치 취하기(position-taking) 과정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3인의 외국인 번역가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여, 이들이 한국문학번역장의 진입 장벽을 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비제도적 자원을 활용하는지 추적할 것이다. 나아가 장 진입 이후, 기존의 지배적 관행인 독사(doxa)와 경합하며 자신만의 차별화된 위치를 점유해 나가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규명함으로써, 이들의 활동이 한국문학번역장의 구조적 변동에 시사하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번역가들은 어떠한 제도적 경로와 진입 전략을 통해 한국 문학번역장에 진입하는가?

둘째, 외국인 번역가는 한국문학번역장의 지배적 독사에 어떻게 대응하여 자신의 위치 취하기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장의 역학 관계는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장의 구조와 역동성

부르디외에 따르면, 장은 “위치들 사이 객관적 관계들의 배치(configuration)”로 정의된다(Bourdieu & Wacquant, 1992/2015, p. 97). 이는 장이 행위자들의 단순한 상호작용을 넘어, 고유한 논리와 규칙에 의해 작동하는 구조화된 권력 관계망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별 행위자들의 실천은 순수하게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위치들의 구조화된 체계인 장에 내재된 힘에 의해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된다. 부르디외는 이러한 장의 작동 원리를 게임(game)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사회적 공간이 게임의 판이라면, 그 안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는 게임의 참가자가 되며, 이들이 보유한 자원은 승패를 결정짓는 패나 판돈에 해당한다(Bourdieu & Wacquant, 1992/2015). 즉, 장은 행위자들이 각자 보유한 자원의 총량과 구성에 따라 특정 위치를 점유하고, 더 많은 자본과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는 투쟁의 공간이다(Bourdieu, 1991). 이러한 장의 개념은 경제장, 예술장, 교육장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경제장에서는 경제적 이윤 극대화가, 예술장에서는 예술적 인정과 명성 획득이 게임의 목표가 된다(Bourdieu & Wacquant, 1992/2015).

장의 핵심적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장은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다. 각 장은 외부의 간섭과 구별되는 고유한 규칙과 논리를

가지며, 내부 행위자들은 이러한 규칙에 익숙해질수록 장의 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공유한다. 특정 장에서 통용되는 가치나 이해관계가 다른 장에서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장의 자율성을 방증한다(김동일, 2016).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모든 장은 거시적으로 권력장이나 경제장 등 외부 장과 영향을 주고받으며(Bourdieu, 1993), 정치적 격변이나 기술 발전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내부 규칙이 재구성되기도 한다(Swartz, 2012). 정권이 바뀌며 교육장이 재편되거나, 기술 발전으로 학문적 규칙이 변화하는 사례가 그 예시이다.

둘째, 장은 내부적인 분화와 위계 구조를 가진다. 장은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세분화된 하위 장들로 층위가 나뉘며, 각 하위 장은 전문화된 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발전한다. 가령 문학장은 시, 소설, 비평 등의 하위 장르로, 교육장은 초등·고등 교육 등으로 분화된다. 또한 장 내부에는 자본의 불균형적 분배에 따른 위계질서가 존재한다. 특정 자본을 많이 보유한 행위자는 지배적 위치(dominant position)를, 그렇지 못한 행위자는 피지배적 위치(dominated position)를 점하게 된다. 툴레네브(Tyulenev, 2014)가 지적하듯, 장 내의 위치에 따라 형성되는 계급(class)은 신분이나 경제적 구분을 넘어 생활 양식과 취향을 공유하는 사회적 지위 집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셋째, 장은 고정된 실체가 아닌 역동적 투쟁의 공간이다. 장의 구조는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의 끊임없는 전략적 실천을 통해 재구성된다. 기존의 지배적 위치를 점유한 행위자들은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보수적 전략을 취하는 반면, 새롭게 진입한 행위자들은 새로운 자본을 앞세워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전복적 전략을 구사한다(Tyulenev, 2014, pp. 173-176). 즉, 장은 구조를 유지하려는 힘과 변화시키려는 힘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역동적인 장소이며, 일반적으로 진입 장벽을 뚫으려는 신진 세력과 독점적 지위를 방어하여 경쟁을 배제하려는 지배 세력 사이의 투쟁이다(Bourdieu, 1993, p. 72).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국문학번역장 또한 이러한 자율성, 위계, 그리고 투쟁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사회적 공간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번역장이 과연 자율적인 실체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Gouanvic, 2014; Sela-Sheffy, 2005,

2006; Simeoni, 1998). 이러한 시각은 번역장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뚜렷한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거나 경계가 불분명하며, 자율적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인접한 장의 작동 방식에 의해 지나치게 영향을 받기에 엄격한 의미에서 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문학장, 출판장 등에 속한 하위장으로 봐야 한다는 회의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문학번역장이 이미 완결된 사회적 장으로 존재한다고 전제하기보다는, 외국인 번역가의 장 진입 경로와 위치 형성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한국문학번역장이 부르디외적 의미의 장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 조건과 한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한국문학 번역은 한편으로는 문학적 가치와 상징자본이 작동하는 문학 실천의 영역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해외 출판 시장의 상업적 논리가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 번역가들이 한국문학번역장에 진입하는 구체적 궤적을 추적하는 실증적 분석에 집중하고자 한다. 즉, 한국문학번역장이 독립적 자율성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거시적 담론에 앞서, 해당 번역장이 어떤 기준과 메커니즘을 통해 진입을 허용하거나 제한하는지 그 미시적 메커니즘을 탐색함으로써 장의 성립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2 독사의 경합과 전략적 위치 취하기

장의 역동성은 단순히 물리적 자원의 배분을 넘어, 장을 지배하는 규칙과 믿음의 체계 속에서 작동한다. 장 내의 행위자들은 명시화된 규칙을 의미하는 노모스(nomos)와 불문율로서의 통념을 지칭하는 독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이영훈, 2021, p. 54; 임진, 2023, p. 33; Bourdieu, 1996). 여기서 노모스가 장을 구획하고 정의하는 근본적인 구성 원리로서, 때로는 성문화된 규칙이나 제도의 형태로 가시화되는 인식(vision)과 분할(division)의 원리라면(Bourdieu, 1996, p. 223), 독사는 행위자들이 의심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명한 이치 혹은 불문율로서의 통념을 지칭한다(Bourdieu, 1977, p. 164).

선행 연구에 따르면 출판번역장의 경우 진입 장벽과 번역가 선정 과정 등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모스보다는 독사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Sela-Sheffy, 2006, 임진, 2023, p. 33에서 인용됨). 이처럼 명문화된

자격 요건(노모스)보다 암묵적 통념(독사)이 강하게 작동하는 장의 특성은, 역설적으로 외부인에게는 더욱 넘기 힘든 보이지 않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텍스트 선정 기준, ‘좋은 번역’에 대한 합의, 혹은 번역가로서 갖춰야 할 태도 등이 명시적 지침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장 내부에서의 실천을 통해서만 내면화 및 체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장 내부의 경험을 통해서만 획득 가능한 독사가 장 진입의 선결 요건으로 요구되어 외부인의 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역설이 발생한다. 이러한 맥락은 번역과 같이 제도화 수준이 낮고 표준화된 자격 요건이 부재한 장일수록, 행위자의 내면화된 성향인 *아비투스(habitus)*와 태도가 진입과 인정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다는 셀라.셰피의 지적을 뒷받침한다(Sela-Sheffy, 2005, p. 12).

이러한 규범과 통념의 장 안에서 행위자의 실천은 ‘위치 취하기’라는 개념을 통해 구체화 된다. 부르디외는 장을 구성하는 객관적 구조인 ‘위치(position)’와, 그 위치를 점유한 행위자가 생산하는 구체적인 실천 행위인 ‘위치 취하기(position-taking)’를 엄격히 구분한다(Bourdieu, 1993, p. 30). 여기서 ‘위치’가 행위자가 보유한 자본의 총량과 구성 비율에 따라 장 내부에서 차지하게 되는 관계적 좌표를 의미한다면, ‘위치 취하기’는 그 위치에 선 행위자가 선택하는 문체, 장르, 번역관, 혹은 정치적 발언 등 자신을 타자와 구별 짓는 모든 형태의 상징적 투쟁 전략을 지칭한다. 즉, 번역가가 번역장에 진입하여 명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은 주어진 ‘위치’에 머무르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경쟁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번역 실천을 통해 차별화된 지점을 점유하려는 역동적인 ‘위치 취하기’의 과정인 것이다.

결국 외국인 번역가들이 한국문학번역장 내에서 수행하는 전략적 위치 취하기는 끊임없는 협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행위자들은 자신이 소유한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동원하여 장의 감각을 익히고, 이를 통해 장의 중심부로 진입하거나 주변부에서 자신만의 틈새 영역을 구축하는 등 역동적인 위치 선점 경쟁을 벌이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외국인 번역가가 지닌 정체성이 한국문학번역장 내부에서 이중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포착하지 못하는 결핍으로 간주되어 진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도착어 원어민으로서의 언어적 권위를 내세워 기존의 번역 관행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문체적 규범을 창출할 수 있는 차별화의 기제로 작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론적 역학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실례가 바로 『채식주의자』의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의 한국문학번역장 내 위치 취하기 과정이다. 한국문학번역장의 전통적인 독사로는 첫째, 한국문학 번역가는 마땅히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완벽하게 체화한 전문가여야 한다는 자격 요건에 대한 믿음, 둘째, 번역이 원작을 투명하게 재현해야 한다는 충실성(fidelity)의 규범이다. 부르디외(1977)에 따르면 독사란 장 내의 지배적인 상징 폭력이 내면화되어 문의 여지가 없는 자연스러운 질서로 기능하는 믿음의 체계를 의미하는데, 한국문학번역장 내에서 위 두 가지 규범은 오랜 기간 번역의 정통성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작동해 왔다. 이러한 견고한 통념 앞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기간이 짧은 젊은 외국인 번역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장 내부의 위계질서를 교란하는 요인으로 작동했다. 스미스는 부족한 한국어 숙련도(언어적 자본)의 결핍을 도착어인 영어의 유려한 문체와 가독성(문학적 자본)으로 대체하는 전략을 취했다(윤선경, 2024, p. 85; 조의연과 조숙희, 2019, p. 198). 이는 원문의 정확한 이해보다는 창조적 개입을 앞세워 기존의 충실성 규범과는 대조를 이루는 행보였다. 결과적으로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은 그녀의 이러한 전략적 위치 취하기가 세계문학장에서 유효했음을 입증했으나, 동시에 국내 장 내부에서는 거센 오역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기존의 독사를 수호하려는 기득권의 정통(orthodoxy)과, 새로운 번역 미학을 도입하려는 이단(heterodoxy)이 충돌하는 전형적인 상징 투쟁의 양상을 보여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국문학번역장에 진입한 외국인 번역가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는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과 구체적 경험을 통해 장 내부의 역학을 규명하는 데 적절한 접근법이다(Yin, 2018).

연구 참여자는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식을 통해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영미권에서 한국문학 번역서를 영어로 출판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번역가로 한정하였다. 이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국문학번역장의 최신 동향과 현장성 있는 경험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특히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한 외국인 번역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들이 외부자적 위치에서 한국문학번역장에 진입하여 기존의 독사와 가장 첨예하게 마주하는 행위자들이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는 한국문학번역장에서 각기 다른 위치와 전략적 특성을 보유한 총 3인의 외국인 번역가로 구성되었다. 연구 윤리 준수와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A, B, C라는 가명을 사용한다. 질적 연구에서 표본의 크기는 수적 규모보다 정보의 풍요로움(information-richness)과 데이터의 포화에 의해 결정된다(Patton, 2015). 연구자는 의도적 표집을 통해 각기 다른 자본 보유량과 진입 경로를 가진 인물들을 설정함으로써, 소수의 사례만으로도 장 진입과 위치 취하기 전략을 심층적으로 포착하고자 하였다. 실제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분석 유목들이 상호 교차 검증되며 범주적 유의성을 확보하였기에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각 참여자의 구체적인 이력과 장 진입 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번역가 A는 대만계 미국인으로, 영어 원어민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중국어를 습득하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 환경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배경은 외국어 학습에 대한 개방적인 아버투스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그는 친구의 권유로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하였고, 대학 진학 후 교내 개설된 한국어 수업을 통해 제 4 언어로서 한국어 학습을 본격화하였다. 이후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언어 능력을 심화하였고, 미국으로 귀국 후 한국어를 복수전공으로 선택하여 언어적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고히 하였다. 이후 다시 한국으로 건너와 국어국문학 석사과정을 이수하며 한국문학장 내부로 깊이 진입하였고, 2018년 번역상 수상을 계기로 공식적인 문학 번역가로서의 경력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국내에 거주하며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전업 번역가로서 다수의 번역서를 출간하고 있다.

번역가 B는 미국 출신으로 학부와 석사 과정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하여 풍부한 문학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학부 졸업 직후 장학 프로그램을 통

해 한국에 체류하며 한국어 학습을 이어갔는데, 초기에는 한국어 교재와 문학작품을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과 한국 내 생활 경험을 통해 언어 능력을 체득하였다. 학습 초기부터 문학작품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습작 번역물을 작성하여 지인들에게 공유하였으며, 이후 문학잡지에 단편 번역을 투고 하면서 번역 활동을 본격화하였다. 특히 미국 문학번역가협회(ALTA) 멘토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출판계 내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였고, 현재는 한국 현대문학을 중심으로 다수의 장편소설을 영어권 시장에 소개하고 있다.

번역가 C는 중국계 싱가포르인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구사하며, K-pop(BTS)에 대한 문화적 흥미를 계기로 한국어 학습에 입문한 사례다. 초기에는 디지털 미디어와 팬덤 커뮤니티 자원을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였으나, 이후 한국 대학으로 진학하여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언어 능력을 제도적 차원에서 확장하였다. 특히 대학 재학 중 수강한 문예창작 수업에서 기성 번역가와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문학번역을 직업적 경로로 인식하게 되었고, 한국문학번역원 번역 아카데미를 수료하였다. 이후 영국의 출판사를 통해 번역서를 출간하며 번역가로서의 입지를 구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국적, 전공, 한국어 학습 경로 등에서 이질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한 후 한국문학의 영어 번역이라는 전문적 실천을 통해 장 내에서 사회적 상징적 자본을 축적해 왔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비교 분석의 대상이 된다. 본 연구는 이들의 상이한 장 진입 궤적이 장 내에서의 전략적 위치 취하기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함으로써, 번역 실천의 장 내 구조와 상호작용을 규명하고자 한다.

자료 수집을 위한 심층 인터뷰는 2025년 9-10월 사이에 진행되었다. 인터뷰 방식은 참여자의 거주지와 일정을 고려하여 대면 또는 화상 회의 플랫폼(Zoom)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였으며, 소요 시간은 평균 60분 내외였다. 연구자는 인터뷰 시작 전 연구의 목적과 절차, 그리고 윤리적 사항에 대해 구두로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인터뷰 언어는 참여자의 선호에 따라 한국어 또는 영어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모든 참여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번역가로서 말하기보다는 읽기와 쓰기에 더 강점을 보이는 특성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보다 미묘한 뉘앙스와 심층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자료의 풍부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참여자의 영어 사용을 적극적으로 허용하였다.¹⁾ 모든 인터뷰는 참여자의 동의를 받고 녹취 및 녹화되었으며, 현장에서의 비언어적 반응이나 주요 키워드는 연구 노트에 별도로 기록되었다.

인터뷰 질문지는 부르디외의 장 이론을 토대로 번역가의 궤적, 장 내 위치, 그리고 장 내 위치 취하기 전략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반구조화(semi-structured)된 형태로 구성되었다. 주요 질문 항목은 <표 1>과 같다.

표 1
심층 인터뷰 주요 질문 구성

구분	주요 질문 내용
장 진입 배경 및 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학 번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배경 • 첫 번역 출판 과정의 경험
장 내 위치 및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역 활동의 지속 동력 및 경제적 보상 구조에 대한 인식 • ‘보이지 않는 보상’(신뢰, 기회, 상징자본)의 획득과 영향 • 학문적 직업적 기회의 확장 가능성
번역가 인식을 통한 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학 번역가에게 요구되는 핵심 자질 • 번역가로서의 정체성 및 태도

자료 분석 전, 수집된 음성 자료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텍스트 변환을 위해 자동 전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영어로 진행된 인터뷰는 ‘Otter.ai’를, 한국어 인터뷰는 한국어 인식이 높은 ‘네이버 클로바노트(Naver ClovaNote)’를 사용하여 1차 전사를 수행하였다. 이후 연구자가 음성 파일을 반복 청취하며 자동 전사된 텍스트의 오류(중복 발화, 비언어음, 고유명사, 전문용어 등)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화자 식별 기능을 활용하여 발화자를 익명 라벨(S1, S2 등)로 통일하였다. 완성된 1차 전사본은 이메일을 통해 연구 참여자에게 공유하여 참여자 확인(member checking)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

1) 본고에 제시된 영어 심층 인터뷰 인용구는 모두 연구자가 번역한 것이며, 원문의 맥락과 화자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여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서면 인터뷰 형식으로 재질의하여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인 ATLAS.ti 25를 활용하였다. ATLAS.ti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 간의 복잡한 관계망을 시각화하는 데 유용하다. 분석 과정은 살다냐(Saldaña, 2021)가 제시한 질적 코딩 방법론을 따랐다. 코딩은 자료로부터 핵심 개념을 도출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으로(김영천과 정상원, 2017),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과 해석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로서 코드를 활용하였다. 코딩 절차는 선형적이지 않고 순환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다.

- 1) 전체적 맥락 파악: 전사본을 여러 차례 정독하며 전체적인 맥락과 의미 단위를 파악하였다.
- 2) 초기 코딩(initial coding): 연구 질문과 인터뷰 가이드를 중심으로 ‘구조적 코딩(structural coding)’과 자료 내의 핵심 주제를 요약하는 ‘기술적 코딩(descriptive coding)’을 병행하였다.
- 3) 범주화 및 정교화: 초기 코드를 비교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유사한 속성을 지닌 코드들을 하위 범주와 상위 범주로 계층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료와 코드, 코드와 범주 간의 지속적인 비교 분석을 수행하여 분석틀을 정교화하였다(Saldaña, 2021, p. 58).

이에 더해 본 연구는 심층 인터뷰 자료가 지닐 수 있는 주관적 기억의 한계와 회고적 편향을 보완하고,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문헌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함께 활용하였다. 이는 자료의 삼각 검증(triangulation)을 통해 질적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다(Yin, 2018).²⁾

수집된 문헌 자료는 연구 참여자가 작성한 문서 자료와 미디어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번역가의 학술논문, 인터뷰 기사, 대담,

2)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자가 특정될 수 있는 문헌 자료(참여자가 발표한 학술논문, 번역서, 인터뷰 기사, 대담 자료 등)의 구체적인 서지 목록이나 출처를 본 논문에 제시하지 않는다.

출판사 보도자료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텍스트들은 번역가가 대중과 장 내부의 행위자들을 향해 자신의 번역관을 표명하고, 자신의 작업을 정당화하는 공식적인 담론의 장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해당 자료들을 통해 심층 인터뷰에서 언급된 개인적 궤적과 경험이 공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교차 분석하였으며, 이는 번역가가 장 내에서 획득한 상징적 자본의 실체와 그들이 구사하는 담론 전략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기여하였다.

4. 분석 결과

4.1 장으로의 진입: 제도화된 자본의 효용과 한계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문학번역장에 진입하기 위한 1차적 전략으로 학위 취득, 번역 아카데미 수료 등 제도화된 문화자본의 획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분석 결과, 이러한 제도적 자본은 번역가로서의 기초적 자격과 언어 역량을 승인해 줄 뿐, 실제 출판 시장으로의 진입을 보장하는 데는 명확한 한계를 드러냈다.

번역가 A는 미국 대학 내 한국어 수업을 통해 문학번역의 가능성을 발견한 후, 국내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진학이라는 가장 정통적인 제도권 경로를 선택하였다. 이는 “한국문학 번역을 하려면 한국문학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그의 신념에 기반한 것으로, 그는 학위 과정을 통해 번역가로서의 학문적 권위와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학술논문들을 통해, 다양한 시기와 장르의 한국문학 작품이 균형 있게 번역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한국문학에 정통한 번역가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A의 장 진입에 결정적 역할을 미친 것은 번역상 수상이었다. A는 번역상이 신진 번역가들의 주요한 데뷔 경로임을 간과하고 전략적으로 공모전에 지원하여 2018년 번역상을 수상하였다. 이 번역상의 시상식 참여는 해외 기반의 유력 에이전트와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만남은

이후 지속적인 샘플 번역 의뢰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A는 “사회적 네트워크 없이는 (한국문학 번역을) 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제도적 인정이 사회적 자본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직업적 궤적이 가능함을 시사하였다.

번역가 B의 장 진입은 한국 체류 경험을 통해 영미권 출판 시장의 공백을 포착하고, 이를 메우기 위한 전략적 실천이 직업적 경로로 이어진 경우다. 장학생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서점과 도서관에서 방대한 한국 문학 텍스트를 접한 그는, 개인적인 흥미에서 출발해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국문학을 소개하기 위해 번역을 시작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당시 미국에서는 김영하, 신경숙 등 대표적인 작품 외에는 한국문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죠.”라고 회고했다. B는 여성 이슈, 퀴어 공동체 서사 등 당시 해외에서는 한국에서 생산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주제들을 다루는 다양한 작품에서 흥미로움을 발견했고, 이를 발췌 번역하여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개인적 실천은 문학잡지 투고라는 구체적인 진입 전략으로 발전하였다. B는 초기 진입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예시 1>

오랫동안 저는 먼저 단편소설들만 번역했어요. 그리고 그걸 미국의 문학잡지들에게 보냈고, 가끔 게재되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 잡지를 읽은 편집자들이 저에게 연락해서 ‘번역한 작가의 장편이나 전체 책 번역 작업을 하고 있는게 있나요?’라고 물어보곤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작업하고 있던 작품이) 없었어요. (번역가 B)

B는 이후 번역가 멘토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출판사 관계자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그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번역하고 있는 작품에 대해 편집자에게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 관심을 가지는 출판사가 나타날 때까지 이메일을 많이 보내고 답장을 받지 못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예시 2>

그러다가 나중에 한 장편 프로젝트를 작업하게 되었고, 미국 문학번역

가협회(ALTA) 멘토십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어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 멘티들이 편집자들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소개할 수 있었어요. 몇몇 출판사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제가 작업 중이던 그 장편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짧게라도 직접 이야기하면서 “이 책은 이런 내용이고, 이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설명하니, 그들이 “그럼 샘플을 보내줄 수 있나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출판사에 직접 샘플을 보내고, 그런 방식으로 관심을 얻을 수 있었어요. (번역가 B)

결국 B의 사례는 한국문학 작품을 발굴하는 ‘문화적 안목’이 잡지 게재라는 ‘상징적 인정’을 거쳐, 멘토십이라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났을 때 비로소 전문 번역가로서의 궤도에 안착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관련하여 A는 해외 출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번역가들에게는 더 많은 번역 기회가 있고 출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언급하였다. 그는 또한 “미국에 ALTA라는 그거 있죠, 그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지금 활동하는 번역가 중에서 그 프로그램 출신이 상당한 비율을 갖고 있거든요. [...] 근데 워낙 번역서도 많고 네트워크도 넓으니까 같이 작업한 학생의 그 샘플을 다 홍보해 줄 수 있으니까 출판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라고 하였다. 또한 유사한 프로그램(BCLT writing workshop)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언급을 하며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이 업계, 그러니까 그 출판계 사람들, 다른 번역가와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라고 하였다.

번역가 C의 경우 대학 재학 중 현직 번역가와의 만남을 통해 “처음으로 번역을 직업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회상하며, 이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직업적 궤적의 첫 발걸음으로 한국문학번역원 번역 아카데미 과정에 등록하였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예시 3>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한국문학을 탐색하고 자신만의 문학적 취향을 정립하는 시기였다.

<예시 3>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보낸 2년 동안 저는 정말 읽기에만 집중했어요. 그

리고 어떤 책을 번역하고 싶은지, 지금 어떤 작가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또 어떤 작가의 말이 내게 울림을 주는 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번역가 C)

그러나 아카데미 수료라는 제도적 문화자본이 곧바로 시장 진입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C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예시 4>

(한국문학번역원 수료를 통해) 한국어 읽기 능력이 향상된 건 정말 중요했고, 그건 큰 성과였어요. 그렇지만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멘토들에게 정말 수없이 많은 질문을 했지만, 멘토들은 항상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아, 어떻게 (편집자에게) 당고 (출판사에 출간을) 제안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아.”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아... 그렇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LTI 수업은 대부분 읽기와 번역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번역가 C)

에이전트나 장 내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인이 시도한 출판사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번번이 좌절되었다. C는 진입 초기의 막막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예시 5>

샘플을 준비해서 한국 출판사에 보냈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대부분 답변조차 받지 못했지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번역 공모전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 코리아타임즈 공모전에 응모했고, 번역 전문 잡지에 시 번역을 신기도 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다른 번역가들을 알게 되기도 했어요. (번역가 C)

반복되는 거절과 기다림은 번역가로서의 직업적 효능감을 저하시켰고, 그는 경로를 포기하기 직전의 위기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단혀 있던 진입의 문을 연 것은 꾸준히 시도했던 문학잡지 게재 활동이었다.

<예시 6>

당시에 번역을 그만두려고 했어요. 에이전트도 없고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니 책을 출판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샘플 번역을 제출하면 긍정적인 피드백은 받았지만, 결국 다른 번역가가 선택되곤 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실망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포기하려던 차에, 문학잡지에 실린 제 번역 시를 보고 제 연락처를 찾은 에이전트가 이메일을 주었어요. (번역가 C)

또한 그는 문학잡지 게재 활동을 통해 여러 동료 번역가들과 연결되었고, 선배 번역가들은 C에게 번역 작업을 소개해 주기도 하였다. 다만 출판 실적이 없는 상태였기에 출판사와의 연결까지 이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결정적으로는, 에이전트라는 사회자본이 확보되면서 비로소 출판 시장으로의 진입이 성사될 수 있었다. 이처럼 첫 번째 출판의 성사는 번역가의 직업적 궤적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작용하였다. C는 이후의 변화에 대해 “첫 책을 출간하고 에이전트를 확보하자 다른 책들까지 연이어 의뢰가 들어와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첫 번역서 출판이 단순한 작업물의 완성을 넘어, 번역가로서의 능력을 보증하는 객관화된 문화자본이자 후속 의뢰를 견인하는 결정적 신뢰 기제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즉, C의 사례는 지난한 진입 과정을 뚫고 획득한 첫 번역서라는 상징자본이, 비로소 그를 장 내 직업 번역가로 안착시키는 핵심 기제였음을 입증한다.

이상의 사례를 종합할 때, 한국문학번역장으로의 진입 과정은 제도적 문화자본의 획득과 사회적 자본으로의 전환이라는 이중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구조를 띤다. 연구 참여자들은 국내 국문학, 비교문화 학위 취득을 통해 학문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번역 아카데미를 수료하며 실무 역량을 다지는 한편, 지속적인 잡지 투고를 통해 가시성을 획득하려 노력했다. 이처럼 A, B, C는 각자의 위치에서 가용할 수 있는 가장 정통적이고 제도적인 방식의 준비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의 성실한 자본 축적 과정이 곧바로 한국문학번역장이라는 시장의 진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문학번역장이 요구하는 진입의 요건이 번역 능력을 넘어, 출판 시

장의 문지기(gatekeeper)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역량과, 자신의 번역물을 가시화할 수 있는 전략적 감각에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장의 진입 장벽은 축적된 제도적 자본을 실제 출판 기회로 전환해 줄 사회적 연결 고리의 부재라는 구조적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과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 번역가 커뮤니티(예: 디스코드)와 멘토십 프로그램을 핵심적인 진입 경로로 지목하였다.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점은, 이러한 공간이 현역 번역가 및 출판사 관계자들과의 실질적인 접점을 제공하여 출판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단순한 정보 공유의 장을 넘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실제 출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공간에서의 만남은, 기출간 번역서가 없으면 번역 의뢰를 받기 힘든 신진 번역가의 구조적 딜레마를 타개하고, 출판사와의 직접적인 접촉면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등단과 출판 계약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2 독사와의 충돌과 위치 취하기 양상

한국문학번역장에 진입한 외국인 번역가들은 필연적으로 장을 지배해 온 기존의 독사와 마주하게 된다. 데보라 스미스의 오역 논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국내 번역장은 원문의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는 충실성의 가치가 지배적인 한편, 외국인 번역가의 한국어 능력이 한국문학의 미묘한 뉘앙스를 포착하기에는 불충분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재생산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번역가 A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예시 7>

2019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의뢰받았거든요. 어떤 대중 소설이었는데 그래서 하겠다고 했더니, 알고 보니 그 해외 출판사가 무조건 한국계 번역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놓고 얘기하는 게 좀 너무 낮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해외에서 오히려 그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아요. (번역가 A)

또한 A는 국문학을 전공하고 번역상을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언어적 역량과 관련한 번역 주체성을 의심받는 모욕적인 경험을 겪었다. 이는 외국인 번역가를 한국어 능력이 결핍된 불완전한 존재로 타자화하려는 장의 관성을 보여준다.

<예시 8>

국내 기획자였던 것 같은데, (연락받았을 때) 그 사람이 먼저 영어로 대화했거든요. 영어로 먼저 대화하기 시작했으니까 저도 계속 영어로 대화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만나서 그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직접 번역 하는지 아니면 뭐 기계로 돌리거나 아니면 아내가 번역 먼저 하고 그 냥 고치는 건지.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아무튼 너무 화났거든요. 근 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번역가 A)

A는 또한 “다른 한국어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번역가와 국내 출판사 나 번역원 사람이랑 만날 때 그런 언어 장벽 너무 많이 느껴져요. [...] 대화 안되니까 뭐 좋은 일이 생길 수 없잖아요.”라고 언급하며 한국문학번역장에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C의 경우 “에이전트가 있으면 한국어로 직접 소통할 필요는 없지만, 혼자였을 때는 한국 출판사에 이메일을 쓰는 것이 큰 부담이었어요. 한국어 이메일은 일정한 ‘포장’이 필요한데, 영어처럼 직설적으로 쓰면 안 되니 한 통을 쓰는 데 한 시간 이상 걸리기도 했어요.”라고 언급하며 국내 출판장 내에서 한국어 소통의 노력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외국인 번역가에게 한국어 구사 능력은 텍스트 독해의 차원을 넘어, 한국문학장의 제도적 행위자들(출판사, 번역원 등)과 교섭하고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실천적 자본으로 기능한다. 이들은 도착어(영어)의 권위에 기대어 안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한국의 출판 문화와 비즈니스 관습이 요구하는 고맥락의 한국어 화법을 체화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나아가 외국인 번역가들의 한국어 역량은 텍스트의 표면적 의미 이해를 넘어, 작품의 배후에 놓인 문학적 역사적 레퍼런스를 탐색하는 연구자적 태도로 구체화된다. 번역가 A는 선행 한국문학 작품을 참조한 소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한국문학 지식이 번역의 해석적 깊이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했음을 언급한다. 이는 외국인 번역가가 텍스트 간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인지하고, 작가의 창작 의도를 다층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한국문학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번역가 C 역시 “책을 번역할 때는 그 책의 본질을 알아야 하고, 출발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문화적 맥락을 모른다면 그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하며, 작품 속에 재현된 역사적 사건, 예컨대 1970년대 노동 저항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언어적 차원에서 치환하는 것을 경계하고, 해당 시기의 사회적 분위기와 시대적 본질을 포착하는 것이 번역의 기본이자 원문 세계에 대한 존중의 실천임을 강조한다. 그는 또한 번역가의 자질과 관련된 질문에 “좋은 한국어 실력, 출발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게 1순위인 것 같아요.”라고 강조하였다.

<예시 9>

그건 언어에 대한 존중이자 읽는 책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걸 완전히 이해해’라는 태도요. 저 같은 경우, 만약 제주어 같은 게 들어간 책을 받는다면 저는 안 한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제주 역사를 알더라도, 제가 그걸 번역할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사투리는 제 장기(forte)가 아니거든요. 그건 그 출발어를 잘 아는 번역가에게 넘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 제 생각엔 출발어가 우선할 것 같아요. (번역가 C)

내국인 번역가와 달리 외국인 번역가에게 한국어 능력은 장 진입 및 활동을 위해 매 순간 검증받아야 하는 자본이다. 이는 내국인 번역가에게 한국어 능력이 당연한 전제로 수용되는 ‘비가시적 자본’인 것과 달리, 외국인 번역가에게는 장 진입을 위해 매 순간 객관화하고 입증해야 하는 ‘가시적 과제’로 작동함을 의미한다. 한국문학번역장에 진입한 외국인 번역가들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고착화된 통념과 끊임없이 마주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외국인 번역가들의 실제 한국어 역량과 출발 언어인 한국어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통념과는 거리가 멀다. 먼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에게 한국어 능력은 장 내부자들과 교섭하고 비즈니스 관습을 수행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는 결정적인 자본

으로 인식된다. 또한 이들은 한국어를 단순한 언어적 숙달의 차원을 넘어 상호텍스트성과 역사적 맥락을 수반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대상으로 파악하며, 이러한 전문가적 태도를 통해 번역의 질적 고양을 도모한다. 특히, 자신의 실력으로 완전한 이해가 어려운 방언에 대해서는 번역을 고사하겠다는 C의 진술(<예시 9>)은, 자신의 언어적 한계를 명확히 인식함과 동시에 원작에 대한 이해를 우선시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한다.

번역가 B는 번역 수행에 요구되는 복합적인 문학적 노동을 단순히 한국어 구사 능력으로 환원하려는 장의 관행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는 한국어 공인어학성적(TOPIK)과 같은 정량적 지표가 번역가의 자격을 보증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예시 10>

번역에는 훨씬 더 많은 추가 노동이 들어가는데도, 그 부분을 축소해서 보거나, “TOPIK 6급이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같은 식으로 생각하죠. 많은 곳이 이력서나 스펙만 보고, TOPIK 6급이면 누구나 번역할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 번역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번역가 B)

이러한 진술은 번역가를 언어 능력으로 평가하는 행태의 위험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는 “언어 능력이 분명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글쓰기 배경”이라고 언급하며, 번역가는 도착어 독자를 위해 텍스트를 문학적으로 다시 쓰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B는 또한 “저는 많은 다른 종류의 영어권 문학에 친숙해요. 그런 문학적 배경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번역의 가치를 문학적 재창작에 둬으로써, 문예창작 전공과 같은 자신의 배경을 유효한 자본으로 전유하려는 전략적 실천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번역가 A 또한 “도착어 글쓰기 능력이 좋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는 진술을 통해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한다. 그는 탁월한 도착어 구사 능력이야말로 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역설한다. 즉, 이들의 주장은 번역의 초점을 원작의 언어적 보존에서 도착어 독자의 수용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외국인 번역가가 가진 도착어 능력과 문학적 감각을 장 내에

서 독자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차별화된 상징자본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적 실천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장 진입 후 연구 참여자들의 궤적은 전문적 위치 취하기의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들은 단순히 주어진 텍스트를 옮기는 수동적 수행자에 머무르지 않고,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하고, 출판 자본과 협상하며, 자신만의 취향을 반영한 작품을 선별하는 능동적인 기획자로 역할을 확장해 가고 있었다. 우선, 번역가로서의 첫 번째 위치 취하기는 ‘자격의 증명’과 ‘존재의 가시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들은 번역상 수상이나 지면 게재와 같은 계기를 통해 비로소 번역가라는 직업적 자의식을 획득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와 싸워야 했다. 번역가 A는 2018년 번역상 수상을 계기로 번역가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했으나, 그것이 곧바로 직업적 안정을 보장하지 않았음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예시 11>

상을 받았을 때 비로소 번역가라는 자각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 후 첫 책이 나오기까지 3년이 걸렸죠. [...] 사실 처음부터 번역가가 되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번역가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경계인 같은 존재니까요. (번역가 A)

A의 진술은 번역가의 위치가 단 한 번의 수상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긴 공백과 불안정한 경계 위에서 지속적으로 재확인되어야 하는 유동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한편, 번역가 B는 번역가의 사회적 위상을 가시화하고, 전문성에 걸맞은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 그는 영미권에서는 번역가가 문학을 다시 쓰는 작가나 예술가로 인정받는 경향이 있어 더 많은 존중을 받지만, 국내에서는 번역가의 노력과 전문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언급하며,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작가와 번역가의 긴밀한 협업이 빚어낸 성취임을 강조하여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측에 번역가들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공식적인 인정과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직접 개진하였다.

번역가 C는 번역가가 겪는 구조적 소외를 “뒷좌석(backseat)”이라는 메타

포를 통해 비판하며, 한국 출판사나 때로는 작가조차 번역가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하였다.

<예시 12>

작가는 자신의 책을 출판해 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조차 하지 않고... 번역가는 여전히 ‘뒷좌석’에 앉아 있는 존재예요. 출판사에서는 번역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 제 성격은 그렇지 않지만, 항상 제 이름이 책 표지에 들어가도록 요구하고, 정중한 대우를 요청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기준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에게 있어 번역가 이름 표기 요구는 단순한 권리 주장을 넘어, 텍스트 생산의 주체로서 자신의 위치를 장 내에 명확히 각인시키려는 인정을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셜네트워크 등에서의 자기 표현과 브랜딩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에 대해 신경 쓰고 있다고 밝혔다.

번역 출판 과정에 대해 진술하며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번역가의 적극적인 태도와 역할을 언급하였다. 예컨대, B는 번역가들의 주도적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영미권 출판사들이 한국문학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번역가가 출판사에 연락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설득하기 위해 애쓰고 여러 번역 주체(에디터, 출판사 등)와 소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체성은 어떤 작품을 번역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작품 선정의 문제에서도 드러난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문학적 선호와 출판 시장의 요구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하며 전략적 협상을 수행한다. 번역가 A는 장 진입 초반, 번역할 한국문학 작품을 발굴하고 출판사에 제안하는 작업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이미 번역가가 내정되어 있거나 출판 계약으로 성사되지 못하는 사례들을 경험하였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의뢰를 받아 작업을 하였지만, “이제 번역서가 여러 개 있으니까 좀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라며 앞으로는 좋아하고 관심 가는 작품을 번역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작가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

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는 번역가의 위치가 자본 축적에 따라 수동적 대리인에서 능동적 기획자로 이동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번역가 B 역시 자신의 번역 목록이 온전히 자신의 선택만으로 채워지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점진적으로 자신의 지분을 늘려가는 현실적인 위치 취하기 전략을 보여준다.

<예시 13>

(Q. 번역할 작품은 직접 선정하시나요?)

요즘에는 약간 50:50 같아요. 제가 정말 신나는 장편소설이 있어서 샘플도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아, 그게 지금은 트렌드가 아니에요’라는 말을 듣죠. [...] 그래서 제가 출판한 책들 중 약 70% 정도는 출판사가 저에게 그 프로젝트를 추천해 준 경우이고, 30% 정도가 제가 선택한 경우예요. (번역가 B)

이러한 진술은 번역가가 완전한 자율성을 가진 예술가는 아닐지라도, 출판 자본의 논리와 타협하는 동시에 자신의 문학적 취향을 관찰시키며 공동의 기획자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위치 취하기가 가장 고도화되는 지점은 순수문학 중심의 위계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틈새 위치의 점유에서 발견된다. 번역가 A는 자신의 작업을 (노벨문학상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문학과는 다른) “대중 소설 문학에 가깝다.”고 하였고, 번역가 C 역시 노벨상 수상 작가나 정통 순수문학만을 지향하는 기존의 번역 관행에서 벗어나, 뱀파이어물, 로봇 서사, 로맨스 등 ‘장르 문학’에 주목하며 자신을 차별화한다.

<예시 14>

사람들이 읽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책들을 출판하고 싶고, 읽고 나서 ‘아, 나는 이 책에서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라고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저는 K-pop 팬이잖아요. 한국문화의 재미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제 역할은 그냥 ‘재미있는 번역가’가 되는 것 같아요. (번역가 C)

C의 이러한 선언은 한국문학번역장이 전통적으로 한국문학을 무겁고 진

지한 텍스트로만 재현해 온 규범과 차별화되는 지점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K-pop 팬덤 정체성과 대중적 감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독자들에게 즐거움과 보편적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새로운 번역가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새로운 장르의 작품을 발굴함으로써 경쟁을 피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려는 고도의 차별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번역가 A와 번역가 B는 현재 한국문학번역원에서 강의를 맡아 후속 세대 번역가를 양성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장 내에서 축적한 역량과 자본을 바탕으로 다시 장의 재생산 구조에 개입하는 주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번역가 B는 온라인 번역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에시 15>

제가 운영하는 번역가 네트워크와 같은 활동을 통해, 언젠가 제가 받은 멘토십을 다른 번역가들에게도 제공하고 싶어요. 공식적인 멘토십 프로그램은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번역가들과 자원을 나눌 수 있다면 좋겠어요. (번역가 B)

이는 번역가 B가 장 내 독점적 자원(멘토십)을 비공식 온라인 네트워크로 확산시키며, 번역장의 재생산 메커니즘을 다원화하는 위치 취하기 전략으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번역가 C 역시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는 출판사로부터 출판 원고의 검토 및 자문을 의뢰받거나, 국내 라디오 프로그램의 고정 게스트로 참여해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사회적 역할이 철저히 ‘출판 실적’에 기반한다는 사실이다. C는 “불행히도 이런 기회조차 책이 출판되기 전까지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출판된 번역서가 있어야만 장 내의 공적 발언권을 획득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한국문학번역장에 진입한 외국인 번역가들의 위치 취하기는 기존의 독사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재정의해 나가는 과정으로 요약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어 능력의 부족을 우려하는 장의 시선에 대해, 번역을 단순한 언어적 치환에서 문학적 재현과 주제적 기획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이들은 한국어 능력의 중

요성을 소거하거나 도착어 능력만을 강조하는 대신, 텍스트 이면에 놓인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치열하게 탐구하는 전문가적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출발어와 한국문학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설적 전략을 취한다. 또한, 장 진입 이후 이들의 궤적은 수동적인 수행자에서 능동적인 기획자로 역할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초기에는 번역상 수상 등을 통해 가시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후에는 출판 시장의 수요와 자신의 문학적 취향 사이를 조율하며 번역 대상을 직접 선별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특히 순수문학 위주의 번역 관행에서 벗어나 장르 문학이나 대중적 서사를 발굴하려는 노력은, 자신만의 고유한 전문 영역을 확보하려는 차별화 전략으로 해석된다.

결국 외국인 번역가들은 ‘출판된 번역서’라는 객관적 자본을 토대로 교육, 자문, 미디어 활동 등 장 내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 범경을 넓히고 있다. 이는 그들이 외국인이라는 주변부적 위치에서 벗어나, 한국문학의 재생산 구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장 내부의 승인된 행위자로 안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부르디외의 번역사회학적 관점을 적용하여, 한국문학번역장에 진입한 외국인 번역가들의 궤적과 실천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도출된 핵심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입 단계에서 외국인 번역가들은 학위 취득이나 번역 아카데미 수료와 같은 제도화된 문화자본을 축적하였으나, 이것이 곧바로 출판 시장 진입을 보장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을 경험하였다. 분석 결과, 이 간극을 메우는 결정적 기제는 사회적 자본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번역상, 멘토십 프로그램, 문학잡지 투고 등의 경로를 적극 활용하여 문지기들과의 접점을 확보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획득한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비로소 장 진입에 성공할 수 있었다.

둘째, 위치 취하기 과정에서 이들은 도착어 글쓰기의 미학적 가치를 전면화하는 동시에, 출발어인 한국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입체적 전략

을 구사하였다. 이들은 단순히 원문의 기계적 해독을 넘어,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대한 치열한 학습을 통해 문학작품을 이해함으로써 원문 이해가 부족하다는 장의 통념에 맞서 자신의 전문성을 입증한다. 즉, 이들은 도착어의 문학적 재현 능력과 출발어에 대한 심층적 독해력을 동시에 점유하고, 나아가 영미권 출판 시장을 주도적으로 개척하는 행위성을 발휘함으로써, 스스로를 단순한 언어적 대리인이 아닌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문화적 생산자이자 공동 기획자로 재정립하고 있다.

셋째, 경력 확장 단계에서 외국인 번역가들은 순수문학 중심의 위계화된 장의 질서에서 탈피하며, 장르 문학 등으로 번역 작품을 다변화함으로써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번역 수행을 넘어 교육 및 자문 활동을 통해 장의 재생산 구조에 깊숙이 개입하며, 제도적으로 승인된 행위자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이는 외국인 번역가가 한국문학번역장의 주변부적 타자에서 벗어나, 장의 역학 관계를 능동적으로 재편하고 한국문학의 외연을 확장하는 장의 재구성자로 변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유의미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질적 사례 연구로서 소수의 번역가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시장 진입에 실패했거나 중도 탈락한 잠재적 번역가들이 겪는 구조적 장벽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 연구 대상이 글로벌 출판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는 영미권(영어) 번역가에 집중되어 있어, 비영어권 번역가들이 겪는 장 진입과 위치 취하기 전략의 차이까지는 세밀하게 규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언어권의 번역가를 포함하고, 예비 번역가가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종단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학술적 실천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학술적으로는 그동안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한국문학 외국인 번역가를 대상으로 하는 번역사회학 연구를 수행하여, 논의의 지평을 외국인 번역가라는 새로운 행위자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부르디외의 장 이론을 통해 외국인 번역가의 활동을 단순한 언어 작업이 아닌 사회적 인정 투쟁의 과정으로 해석함으로써, 한국문학번역장의 구조적 역학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실증적 사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기

여하는 바가 있다.

실천적 차원에서는 한국문학번역장의 제도적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번역가 양성 정책이 단순히 언어 번역 교육이나 아카데미 운영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신진 번역가들이 출판 시장과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사회적 자본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오늘날 한국문학번역장의 외국인 번역가는 더 이상 한국인 번역가를 보조하는 공동번역가나 주변부의 조력자가 아니며, 장의 역할을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핵심 주체로 부상하였다. 본 연구가 조명한 이들의 장 진입 과정과 역동적인 위치 취하기 서사가, 향후 한국문학번역장의 포용성을 넓히고 더욱 다층적이고 지속 가능한 번역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유의미한 학술적 토대이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동일. (2016). 피에르 부르디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영천, 정상원. (2017). 질적연구 방법론 V: Data analysis. 아카데미프레스.
- 윤선경. (2024). 번역에서 문학으로 — 데보라 스미스의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 영어번역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94, 83-104.
- 이영훈. (2021). 번역사회학 개관: 피에르 부르디외의 사회학 이론을 기반으로. 번역 언어 기술, 2, 45-69.
- 이화연. (2025). 페미니스트 번역가 유혜담의 아비투스과 번역 전략 연구: 『코르셋』의 파라텍스트와 번역 전략 분석. 번역학연구, 26(3), 233-258.
- 임진. (2020). 어느 실용 번역가의 아비투스 연구: 바깥텍스트와 번역결과물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4(1), 167-199.
- 임진. (2021). 나는 왜 번역하는가?: 한 중국어 출판번역가의 아비투스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3(6), 659-679.
- 임진. (2023). 경제 경영서 번역장에 대한 연구: 번역가 3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전수용. (2025. 1. 14.). [로터리] 번역대학원대학의 존재 이유.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2GNOWRPDJZ>
- 조의연, 조숙희. (2019). 테보라 스미스의 번역관과 ‘결여-향상’과 ‘해석-다양성’ 재번역의 관점에서 본 *The Vegetarian*. 번역학연구, 20(5), 197-216.
- Bourdieu, P.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R. Nice, Tr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72)
- Bourdieu, P. (1991). *Language and symbolic power*. Polity.
- Bourdieu, P. (1993). *Sociology in question*. SAGE.
- Bourdieu, P. (1996). *The rules of art: Genesis and structure of the literary field*. Stanford University Press.
- Bourdieu, P., & Wacquant, L. (2015). 성찰적 사회학으로의 초대 (이상길 번역). 그린비출판사. (Original work published 1992)
- Gouanvic, J.-M. (2014). Is habitus as conceived by Pierre Boudieu soluble in translation studies?. In G. M. Vorderobermeier (Ed.), *Remapping habitus in translation studies* (pp. 29-42). Rodopi.
- Patton, M. Q. (2015).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Integrating theory and practice* (4th ed.). SAGE.
- Saldaña, J. (2021). *The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 (4th ed.). SAGE.
- Sela-Sheffy, R. (2005). How to be a (recognized) translator. *Target*, 17(1), 1-26.
- Sela-Sheffy, R. (2006). The pursuit of symbolic capital by a semi-professional group: The case of literary translators in Israel. In M. Wolf (Ed.), *Übersetzen-Translating-Traduire: towards a "social turn"* (pp. 243-252). LIT Verlag.
- Simeoni, D. (1998). The pivotal status of the translator's habitus. *Target*, 10(1), 1-39.
- Swartz, D. (2012). *Culture & power: The sociology of Pierre Bourdieu*.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yulenev, S. (2014). *Translation and society: An introduction*. Routledge.
- Wolf, M., & Fukari, A. (Eds.). (2007). *Constructing a sociology of translation*.

John Benjamins.

Yin, R. K. (2018). *Case study research and applications: Design and methods* (6th ed.). SAGE.

Entry and position-taking of foreign translators in the field of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Focusing on Bourdieu's concepts of field and doxa

Eun-Kyoung Choi

Departmen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Communi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dynamic landscape of the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field by analyzing the entry and position-taking processes of foreign translators, who have emerged as pivotal agents in the global promotion of Korean literature. Grounded in Pierre Bourdieu's sociological framework, specifically the concepts of field and doxa, this research conducts a qualitative case study of three foreign translators. It explores how they navigate both institutional and non-institutional networks to overcome entry barriers and how they develop practical strategies to challenge established conventions. The findings suggest that, at the entry stage, foreign translators bridge the structural gap between institutionalized cultural capital and the publishing market by mobilizing social capital. In terms of position-taking, they employ a dual strategy that emphasizes the stylistic value of the target language while demonstrating rigorous expertise in the source language's cultural context of the source text. In doing so, they challenge the doxa that foreign translators lack deep textual understanding. Furthermore, by expanding into genre literature and assuming educational roles, they have evolved from peripheral outsiders to active constructors of the field. Academically, this research expands the scope of sociology of translation by interpreting these activities as a struggle for social recognition. Practically, it suggests that institutional support should move beyond language training toward fostering social capital and networking opportunities to ensure a sustainable and inclusive translation field.

Keywords: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foreign translators; sociology of translation; Pierre Bourdieu; translation field

키워드: 한국문학 번역, 외국인 번역가, 번역사회학, 피에르 부르디외, 번역장

최은경(<https://orcid.org/0009-0003-7779-5585>)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 초빙교수
eunyoung.choi@daum.net

논문 투고일: 2026년 2월 2일
1차 심사 완료일: 2026년 3월 2일
2차 심사 완료일: 2026년 3월 8일
게재 확정일: 2026년 3월 16일